

여성노동자 운동사의 살아 있는 역사

—『여성노동자 운동사』1, 2

오장미경

최초의 여성노동자 운동사 서술의 의의

한울아카데미에서 펴낸 『여성노동자 운동사』 1,2권은 한국 여성노동자 운동사를 정리해 보겠다는 야심찬 의도를 품고 저술된 책이다. 여성노동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1997년 기획에 들어가 4년 만에 이룩한 쾌거인 것이다. 이옥지, 강인순 두 저자와 한국 여성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효재 선생님, 그리고 여러 여성노동자들과 한국여성노동자회 회원들의 열의있는 꾸준한 노력이 합쳐져 이루어진 작업이다.

그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성노동자 운동 부문, 국기를 비롯해 노동조합, 남성노동자들조차도 그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여성노동자 운동의 살아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자 한 이 작업은 그야말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 힘들고도 지난한 작업을 감수한 현시대 여성노동 운동가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었다. 그야말로 쌈지돈을 모아서 녹음 테이프를 샀고 자원봉사로 구술과 면접, 녹취작업들을 해낸 외롭고도 거룩한 공동작업이기도 했다. 여성노동자들 자신의 열의를 모아 여성노동자

운동사 70년을 복원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기획은 이런 노력 위에서 탄생했다. 이처럼 여성노동 운동가들의 땀과 자원봉사로 한 장 한 장을 엮어 만든 것이기에 이 작업은 작업과정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 과정 그 자체가 여성노동자 운동사를 써가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일반노동자 운동사’와 분리되는 ‘여성노동자 운동사’

이 책은 우선 한국에서 자본주의 공업화가 시작된 이래 여성노동자가 형성된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여성노동자 운동사를 통사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여성노동자 운동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더욱이 자본주의 근대화 이래 최초의 여성노동자 운동사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적 배경과 더불어 여성노동자의 객관적 실태를 시대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한 최초의 여성노동자 구조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구조사라기보다는 사건사의 의미가 더 크긴 하지만)

저자와 기획자들은 일반노동자 운동사와는 별도로 여성노동자 운동사를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한국 여성노동자 운동사를 계획하게 된 이유는 노동운동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이 노동운동사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투쟁하고 노력하여 이룬 것이 노동운동사의 역사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서문:8)

저자들의 말처럼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반 노동운동과 분리하여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을 별도로 기록한 책은 없었다. 여성노동자 운동은 한국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운동사로 간주되어 온 기존의 노동운동사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된 파업 등의 투쟁기록에서조차도 여성노동자는 드러나 있지 않고, 주변적

인 인물로 취급되어 있으며, 그림자로 남아 있거나 남성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1권, 22쪽) 이처럼 여성노동자들의 운동은 일반 노동운동 속에 파묻혀서 부각되지도 않았고 인식되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사회에서 1960~70년대는 산업 노동자들이 저항적이기보다는 온건하였으며, 노동운동의 무풍지대로서 인식되어 왔다.

“박 정권 시기의 20여 년 동안 한국에서는 정치안정을 위태롭게 하거나 산업화 과정을 저해할 만한 중요하고도 대규모적인 어떠한 노사분규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기에서 한국의 제1세대 산업노동자들은 어쩌서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투쟁적이고 저항적이기보다 정치적으로 온건하면서 일에 대한 높은 수준의 헌신과 열의를 보여주었는가 하는 흥미로운 문제가 제기된다.”(최장집, 1997:15)¹

이는 1970년대 여성노동자 운동의 존재와 역사 자체를 무시하는 평가이다. 이에 저자들은 지금까지 남성노동자들은 그들의 아내이자, 자매, 딸의 존재로서 여성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제문제들을 자신들의 운동과 투쟁의 과제로 삼지 않았으며, 따라서 남성노동자 운동과 여성노동자 운동은 운동과제와 투쟁의 과제에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 운동사는 별도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사(gender history)라기보다는 여성사(women's history)에 초점

나아가 저자들은 '여성노동자 운동'의 개념 정의에 주력한다. 일반노동자 운동과 분리하여 별도로 여성노동자 운동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는지에 주목하는 것이다. 저자들은 주체의 차이가 운동과 투쟁의 과제 면에서 차이

1 최장집, 『한국 노동운동과 국가』, 나남출판, 1997.

를 가져오게 한다고 보면서,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남성들보다 낮고 노동시장에서도 여성들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성차별이 있기 때문에 '여성노동자 운동'의 개념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을 주장한다.(1권, 28쪽)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간의 운동사 속에서, '주체의 구별'이 반드시 '운동과 투쟁의 과제 면에서의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저자들의 '여성노동자 운동사' 서술의 의도를 제약한다. 실제로 한국 여성노동자 운동사 속에서는 1980년대 중후반 이전까지는 계급에 관련된 쟁점 이외에 여성을 위한 성에 관련된 쟁점이 제대로 제기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승진, 승급, 임금 등에서의 남녀 불평등 완화 및 성차별의 철폐 등과 같은 요구와 모성보호 조항의 개선 등은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거의 운동의 내용에 등장하지 않았다. 저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은 "왜 그러했는가?", "왜 여성노동자라는 남성과 다른 주체들의 운동 이슈와 투쟁과제가 남성노동자들의 운동과 흡사했는가?"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결국 저자들이 찾아낸 답변은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또 최저생활이 보장되지 못해 생존만이 중요했던 상황에서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조건이 '여성'이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의식을 잇게 하였고 '여성'으로서의 차이를 드러내는 투쟁과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가난한 농민의 딸로서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집안을 위해 남자형제들의 학비를 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역사에서 여성노동자들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으로서 한국 사회의 딸이자 노동자였던 것이다. 이런 남성 중심적인 의식은 여전히 극복되지 못한 채 오늘날에도 남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여성사업장의 남자위원장, 그리고 여성위원장들의 비주체적인 모습에서 아직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2권, 29~30쪽)

그러나 이러한 저자들의 답변은 본질적인 질문에 정면승부하기보다는 그것을 살짝 비껴간 듯한 느낌을 준다. 단지 '환경적 탓' 만이 이유였을까? 저자들은 이 문제에 좀더 매달려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주의 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좀더 깊이있는 구조적·심리적 분석과 설명'을 해냈어야 한다. 저자들은 이 질문의 근본적 원인을 충분히 깊이있게 설명해 내지 못함으로써 앞뒤 서술에서 자기모순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저자들은 앞에서 '주체'의 차이가 운동과 투쟁의 과제에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서술하였지만, 실제로 이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저자들이 스스로 던진 중요한 질문에 충분한 답변을 하지 못한 이런 상황은 그렇게 힘주어 주장한 '여성노동자 운동사' 서술의 필요성을 반감시킨다.

그러므로 이 책은 엄밀히 말하면 '여성노동자'에 관한 역사이지, '여성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쓰여진 역사라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누락되고 배제된 여성의 역사를 채워넣고 복원하는 작업(women's history)'이지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역사서술을 비판, 수정하는 젠더사(gender history)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² 저자들은 여성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젠더사를 의도하였지만, 우리 여성노동자 운동사 속에서 그런 관점에 기반한 운동사례들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의 짧은 역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쓰기 어려웠음을 밝히고 있는데, 따라서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해내지 못했는지를 충분히 서술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준다. 그러나 어쨌든 1차 자료가 드문 상황 속에서 '여성에 관한 역사'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다

2 일반적으로 '여성사'란 여성들의 역사, 여성에 관한 역사, 여성억압에 관한 역사, 남녀 양성 간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들을 포괄하지만, 협의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남녀 양성 간의 관계를 다루는 '젠더사'를 제외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젠더사'는 '젠더'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모든 관계를 포착하고자 하며, 성 간의 불평등을 문제로 삼아 궁극적으로 성을 초월하는 전망을 지닌다. 서구에서는 이렇듯 엄밀한 기준 아래 '여성사'와 '젠더사'를 구분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개념의 생소함으로 인해 '젠더사'를 포괄하는 의미로 '여성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례들의 의미화 작업이 필요

한편 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책에서 저자들은 여성노동자 운동의 시작인 일제시대로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시대적 조명을 하면서 특히 정치적 구조변화와 대항세력으로서의 여성노동자 운동과의 역학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즉, 일제 식민지, 미 군정기,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6공화국, 김영삼 정권 등의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정권과 노동정책의 변화가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력, 이 둘 간의 상관관계 등에 집중하여 서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산업화 과정이 국가 중심적이었고 국가의 구조변화와 직접적인 관계 속에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식의 서술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지만, 경제적 산업구조나 사회구조 변화와의 관계 속에서의 서술은 지나치게 소략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든다. 노동자 운동의 배경이 지나치게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다루어져 중범위 수준의 배경이나 사회적 맥락 같은 것이 잘 파악되지 않는다. 즉, 우리 사회에서의 기업구조의 형성이나 발전과정, 노동자 성장과정 같은 측면은 잘 드러나지 않아 국가와 운동만이 있고 기업이나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 '운동사'가 되어 버렸다.

또한 이 책은 사건사를 정리하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그러한 사례들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낱낱의 운동에 대한 일차적 정리로는 귀중한 자료가 되지만 개별 운동이 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아쉬움을 준다. 즉, 개별 운동이 지역적 차원에서, 여성적 관점에서, 노동자의 관점에서, 운동사적 관점에서, 시대사적 관점에서 갖는 의미 등등을 장별로 정리를 해 주었더라면 여성노동자 운동사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

구술 연구방법에 의거한 일차자료 구성

이 책의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연구와 구술 연구방법에 의거한 것이다. 날이 훌쩍어져 있는 개별 노동운동 사건들의 일차자료들을 모으고 당시 노동운동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술면접을 시도하여 개별 사건들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저자들은 '여성노동자 운동사'에 관한 사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사례를 선정하는 기준을 느슨하게 하여 혹 놓칠 수도 있는 여성노동자 활동을 모두 포함하려고 애쓰고 있다. 즉, 저자들은 사업장의 여성 구성비가 높게 나타나는 사업장,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동운동 사례에서 여성노동자들의 활약이 나타난 사례, 여성노동자 위주의 노동조합 운동, 남녀 모두 간부와 평조합원을 하며 함께 투쟁을 했던 사업장, 남자는 간부, 여자는 평조합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장, 노조의 어용성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립된 사업장, 노조가 없더라도 개인 여성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투쟁을 한 사업장들을 포함시켜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여성노동자 운동의 사례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일차자료를 모으고 일차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해 낸 것은 앞으로의 여성노동자 운동사 연구에 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여성노동자 운동 사례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 구술연구가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 책이 열매를 맺기까지 면접에 응한 사람들의 기여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면접자료와 인터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책 맨 뒤에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으며, 구술연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의미화하지 못하고 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구술연구가 갖는 의의를 서술해 주고, 구술자들의 선정과정, 면접에 참여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 면접 과정에서 어려움과 구술방법을 통해 얻어진 방법론적 성과 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하게 수록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을 준다.

이처럼 이 책은 몇가지 면에서 아쉬움을 안겨주고 있지만, 한국 최초의

여성노동자 운동이라는 점과 물질적 어려움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헌신성과 사명감에 의해 탄생한 공동저작이라는 점, 선뜻 아무나 쉽게 하기 어려운 지난하고 힘든 작업을 인내심있게 밀어붙여서 여성노동자 운동에 관한 사례들을 자세하고도 치밀하게 복원시켜 놓은 점 등에서 더 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우리 시대의 노동 勞作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오장미경 bomis@frechal.com |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원 연구교수, 한국 여성연구소 학술국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운영위원. 저서로는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 여성운동』(편저),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여성노동운동과 시민권의 정치』, 『현대 비판사회이론의 흐름』(공저) 등이 있다.